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9호 [루게 제2304호]

주제 103  
(2014). 12  
6  
토요일  
음력 10. 15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부대들을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2월 1일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에 진입한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직속 포병중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먼저 상학실에서 진행되는 군인들의 전문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 중대군인들이 첫시작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훈련에 달려붙은것이 알린다고, 인민군장병들의 훈련열의가 대단히 높다는것을 잘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꾸린 중대병영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대병영을 당에서 비준해준 표준병영설계대로 군인들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 생활문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정말 잘 꾸렸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침실들에 설치한 침대도 현대적이고 창문규격도 알맞춤하며 리밭실, 세목장 등도 요소요소 흠잡을데가 없이 깨끗하다고 기뻐하시였다.

정치사상교양사업인 교양실도 군인들의 정서와 감정에 맞게 잘 꾸렸으며 비품들도 일식으로 그쁘히 갖추어놓았다고 하시였다.

식당의 조리대에 차려놓은 물고기와 고기, 두부를 비롯한 갖가지 음식들을 보시고 수산, 축산, 공농사를 잘할데 대한 당의 3대열풍방침이 그대로 반영된 호맛한 풍경이라고 하시였으며 무난방은실을 돌아보시면서는 면적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는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에서 직속 포병중대병영을 당에서 좋다고 한것을 빠짐없이 받아들이며서도 혁신적안목을 가지고 건설했다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멋있고 자랑할만 한 표준병영이라고 거듭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형단위를 창조하여 그 모범을 일반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투쟁방식인것만큼 앞으로 중대병영을 건설할 때 이곳 군부대의 경험을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직속 포병중대의 군사대상물과 전투기술기제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중대군인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원수들에 대한 서리밭같은 증오심을 안고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

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오종홍7연대직속을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1313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6년 12월 이곳 군부대관하 조영호영웅중대를 찾으시어 주신 유훈교시관철정형을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오종홍 정치대학장실, 훈련관을 돌아보시면서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눈속에 묻혀도 푸른 기상을 떨치는 소나무처럼, 부서져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불에

타도 끈음을 버리지 않는 참대처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백절불굴의 전위투사,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 훈련관리용실태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곳 군부대 전투원들은 최고사령관의 눈과 귀, 길잡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면서 최고사령부의 작전적구상을 실현하는데서 그들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군인들이 그 어떤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능동적으로 활동하자면 자기들의 작전임무수행지역에 대하여 환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그러자면 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훈련을 실속있게 하

며 훈련방법과 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의 작전계획을 검토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작전계획문건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고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행동순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작전계획을 싸움의 견지에서 현실성있게 세우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과 방도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 지휘관들과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의 권총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은 무엇보다도 총을 잘 쏘아야 한다고, 전투원들은 총탄 한발에 원수 한눈을 쏘아잡는 명사가 되여야 한다고,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조준과 격발훈련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명중사격요령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보여준 중대장 김충성을 고무격려해주시면서 지휘관이 총을 잘 쏘는것을 보니 중대군인들도 명사수들일것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이곳 군부대에서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의 첫 총성을 울리였다고, 이 메아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관하 조재현영웅중대를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19명의 공화국영웅과 11명의 조국통일상수상자를 배출한 군부대군인들이 싸움의 날 모두가 전투영웅이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재령군에서 체육관 새로 건설

재령군에서 체육관을 새로 일떠세웠다. 배구, 농구, 탁구, 유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경기 운동할수 있게 꾸려진 체육관에는 2개의 선수대기실, 문화후생시설 등과 1, 2층으로 된 수백석의 관람석이 있다. 조선로동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군에서는 체육관을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울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에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대중의 열의를 북돋아주는 화선선동의 북소리가 새차게 울리는 속에 일군들은 자체를 앞세워 보장하고 공장간편계를 빈틈없이 하여 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갔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체육관건설은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전부 마무리되었다.

여러 단위들과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은 건설자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여주고 공사를 다그치는데 기여하였다. 새로 일떠선 체육관으로는 군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찾아와 다양한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위대한 업적

####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의 글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만화영화제작에 서로의 지혜를 합쳐간다.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에서-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홈페이지에 1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위대한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이 쓴 글이 게재되었다. 글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 3돐을 맞으며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그분의 한평생을 돌아보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첫째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뛰어난 사상가이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나가는것을 사상리론활동의 큰 목표로 내세우시고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로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지속적인 사색과 통찰력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주체사상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독창성과 세계사적위엄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여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였으며 자주시대의 발전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새로

운 원리와 내용들로 더욱 발전봉부화하시였다. 또한 조선혁명의 역사적경험과 시대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주석의 선군사상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키시어 새로운 시대의 지도적지침을 내놓으시였다. 혁명은 총대에 의해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라는 총대철학을 정립하시고 선군혁명의 원리와 원칙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으로써 주석의 선군사상을 더욱 발전봉부화하시였다.

둘째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조선혁명을 승리의 길로 이끄신 뛰어난 정치가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선진적정도로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온갖 난관속에서도 확고한 정치적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길로 전진시키시였다.

또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철학으로 인덕정치, 광복정치를 펼치시어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를 이루시고 변혁의 주체를 더욱 튼튼히 다지시였으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큰 성과를 이루하시였다.

셋째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아내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선군혁명의 전위대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전투력을 비강화하시였으며 군민일치를 새로운 단계로 올려세우시였다.

또한 온 사회에 군사증시기풍을 세우고 자립적인 국방공업의 토대를 강화하시어 제국주의연합세력이 이복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였다. 조국과 혁명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에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주체사회주의를 수호하시였으며 이복을 강력한 핵보유국, 인공위성발사국으로 전진시키시였다.

넷째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조선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성으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그이께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은 최대의 기쁨이였다. 그이께서는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갖 고생을 다 겪

으시며 끊임없는 헌지지도를 이어가시였다. 강성국가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쉬임없이 노력하시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정력적인 헌지지도강행군길이 있었기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과 같은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대규모적인 토지정리가 시행되었고 이북경제가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의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사회주의문화예술발전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

다섯째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은 통일된 부강조국에서 행복찬 삶을 누리려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의 소원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온 겨레를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길로 이끄시였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여섯째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인민의 자주위업수행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주와 정의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를 고수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시대적 모범을 창조하시어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출기차게 전진시켜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 나라에

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있던 시기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저작들을 발표하시어 사회주의는 인민의 요구이며 그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리를 밝혀주시였으며 《사회주의종말》에 대하여 떠들던 제국주의자들에게 라격을 가하고 진보적인류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사상사업을 앞세우시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시으로써 자주와 진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시였다.

이처럼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다. 또한 격동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자주와 정의의 기치, 주체의 기치,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세계 자주화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출기차게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 장군이시였다.

본사기자

# 선군으로 민족의 존엄을 빛내주시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의 한생은 선군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선군, 세계의 다른 나라 사전들에도 없는 독특한 이 말을 조용히 불러보노라면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뜻밖에 잃고 피눈물의 언덕에서 새해를 맞던 주체84(1995)년의 첫 아침이 먼저 떠올려지곤 한다.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사면팔방에서 달려들며 공화국을 위협하던 그때 이 땅우에서는 어떤 퇴성이 터져올랐던가.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고 민족의 장래가 결정될 중대한 갈림길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결연히 다박술초소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에 오르셨었다.

제국주의자들이 기고만장하여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며 우리 공화국에 공격의 총화살을 둘러고있던 그때 선군의 총대를 더 높이 추켜들지 않고서는 나라를 지켜낼수 없었기에, 선군이 없이는 평화변역의 넓은 길도 열수 없었기에 장군님께서는 새해의 첫 아침 이 나라 군인들이 지킴선 다박술초소에 대한 뜻깊은 시찰을 하시겠다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최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북국은 천년이요, 망국은 순간이라고 쓰시었다. 인민들이 자주적근위병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제국주의의 비참한 노예가 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는 력사의 선언을 남기시며 선군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시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그이께서 헤쳐주시신 선군장정의 길은 보통의 선님과 의지로 용단을 내릴수 없고 걸을수 없는 험난하고 시련에 찬 강

행군길이었다.

오성산, 초도, 관문점, 철령...

전사들을 찾아가는 나의 길은 그 어떤 풍랑도 막지 못할것이라고 하시며 장군님께서 길길이 솟구치는 파도를 맞받아 자그마한 폐수정에 몸을 실으셨던 초도에서의 항해파정을 전해들었을 때 그 누구인들 눈물로 두볼을 적시지 않았으랴.

선군의 산악 오성산에로의 선군장정의 길에 새겨진 만단사연은 이 나라 사람들의 심금을 또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었던가.

막장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 비줄기가 쏟아져내리던 그날 장군님께서 라신 야전차는 오성산의 칼바랑길에서 지켜내리시 시작하셨다.

물아오르다가 쓰치고 다시 용을 쓰다가는 물러나고...

한발 잘못 짚으면 천길낙마로 떨어지게 되고 한걸음 물러서면 조국인민들이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는 력사의 그 길에서 장군님께서는 야전차에 서슴없이 어깨를 들이대시며 사회주의의 수호의 길, 민족존엄을 위한 전진미담의 길을 헤치시었다.

누구나 쉽게 내짚을수 없는 길, 보통심장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런 길을 위대한



녀성비행사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지금 공화국의 하늘에는 녀성비행사들이 탄 추격기가 장쾌한 폭음을 울리며 기세차게 날고있다.

얼마전 몸소 비행장황주로에 나가시어 이들의 비행훈련을 보아주시고 지도해주시신 경에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대단하다고, 정말 잘 란다고 칭찬하시었으며 훈련을 마친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대견한 그들의 모습을 고향의 부모들도 볼수 있게 한평명 사진까지 친히 찍어주시었다.

항공공력사에 처음으로 탄생한 녀성추격기비행사들.

지금까지 추격기라 하면 속도가 빠르고 민첩한것으로 하여 남자들이 다루기 힘든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남자들이 못지않게 녀성들도 추격기를 쎌생 몰며 하늘을 휘젓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강한 모습인가.

들이켜보면 공화국의 항공공력사에는 녀성비행사들이 새겨온 위훈의 자욱도 크게 새겨져있다.

조선에서 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0(1951)년 3월 어느날이었다. 평범한 한 처녀가 비행사가

될것을 지망하였다가 조선녀성들은 체질상 비행기를 타기 힘들다는 부당한 리유로 제대되었다는 사실을 아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우리 나라가 해방된지 몇해 되지 않았는데 녀성의 몸으로 비행사가 되었다고 지망하였으니 얼마나 자랑할 일인가 하시며 그가 희망하는대로 군대에 다시 받아들여 유능한 비행사가 되도록

## 하늘을 나는 녀성추격기비행사들

적국 고무하고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한 처녀의 애국의 마음을 그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깊은 관심을 기울이신 그이의 믿음과 보살핌속에 그는(태선회) 야간폭격기부대의 첫 녀성비행사가 되어 여러차례에 걸치는 야간폭격전투에 참가하여 적들에 죽음을 불벼락을 안길수 있었다. 그 나날 그는 공민의 최고영예인 공화국영웅칭호도 수여받았다.

그후 그가 다시금 여러 전투에 참가하여 공군을 세웠을 때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를 만나시고 식사도 함께 나누시며

장군님께서 웃으며 헤치시었다.

총대로 나라를 지키고보야 경제건설도 다그치고 인민생활도 향상시킬수 있다고 굳게 믿으셨기에 그이께서는 그 누가 내마음을 몰라주겠도 희망하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구절을 마음속으로 부르고 부르시며 사선

녀성들도 얼마든지 비행기를 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목숨으로 지키겠다는 각오만 가지면 무슨 일이든 다 해낼수 있다가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아들이 유능한 비행사가 되도록

나이와 고향, 부모들의 소식에 대해서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 소감과 녀성들도 비행기를 탈수 있는가 등 일일이 알아보기도 하시었다.

녀성들도 얼마든지 비행기를 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목숨으로 지키겠다는 각오만 가지면 무슨 일이든 다 해낼수 있다가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아들이 유능한 비행사가 되도록

다하고 하신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녀성비행사를 더 많이 양성하여 녀성비행대를 조직하도록 할데 대해 이르시었다.

이렇게 녀성 전용한 전화의 불길속에서 녀성비행대가 조직되었고 첫 녀성비행대는 전선동부의 어느 한 비행장에 기지를 두고 용감히 싸워 전승승리를 이룩하는데 기여하셨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61(1972)년 5월 어느날에는 항공학교에서 비행술을 익히고있는 처녀비행사들을 만나시어 꼭 훌륭한 비행사가 되라고 고무하시었고 또 언젠가는 녀성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보시고

심속에 녀성비행사들의 조국수호의지와 비행술은 비상히 높아졌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전투임무수행에서 공헌한 비행사들과 녀성비행사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푸신 장군님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따사로운 손길에 의하여 자라난 녀성비행사들을 공화국의 하늘을 지키는 용사들로 더욱 억세게 키워주셨고이들은은 경에하는 김정원수님입니다.

지난 3월초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방항공군 제2620군부대의 녀

친리의 전진길을 끝없이 이어가시었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 백두의 담력으로 선군총대들이 전진시찰의 길을 활기차게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은 정녕 전화의 나날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없이 불

비행사들의 훈련을 지도하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의 높은 비행술을 치하하시었고 조국수호에 헌신한 의무로, 최대의 애국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만 부부전투비행사들을 찾아볼수 있을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령장의 슬하에서는 강군의 대부대가 자라는 법이다.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뿌리깊고 체질적인 적대감을 품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에 의해 침체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반공화국 《인권결의》라는것을 날조한 적대세력의 책동은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전복을 겨냥한 침략 야망의 발로이다.

하지만 위대한 선군령장의 령도면 녀성비행사들과 같은 열혈애국자들이 무적의 총화살을 이루고있어 이 나라의 하늘과 땅, 령해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며 대결모략에 미쳐날뛰는자들은 멸적의 불세례를 면할수 없다.

김금순

내었지만 장군님 결단코 걸으신 선군장정의 길이야말로 가장 선견지명이 있는 애국애족의 선택이었음을 오늘의 강대한 조선의 현실은 얼마나 명백하게 말해주고있는것인가.

힘이 없으면 정의도 불의로 매도되고 짓밟혀야 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일찍부터 군력강화에 커

것은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내 조국이 인민의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라는것을 형성적으로 표현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의 푸른 하늘과 기쁨들이 이 땅을 끝까지 지키고 락원으로 가꾸어갈것이라고 하시었다.

한평생 조국산천을 인민의 락원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헌신한 길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에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이 땅에 푸른 숲 우거질 매일의 휘황한 설계를 펼쳐주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언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안으시고 실천에 구현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주의는 김정일애국주의라고 하시면서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허주는 참다운 애국주의라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이 깃든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몸소 나무모를 손에 쥐시고 양묘장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를 수렴하, 원림화하도록 할데 대해 다 시금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주일봉

나는 10년째 고국을 레망하고있다. 조국에서 공부도 하고 춤도 배우며 댄 걸음이 이제는 조국방공공연무대에 오르는 길이 됐다. 수차례 걸쳐 4월의 봄 천선에술축전에 참가했다.

고국을 찾을 때마다 매양 체험하는바이지만 조국의 발전속도와 인민들의 문명수준은 현지에서 두드러지고있다. 근간에만도 조국의 이모저모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평양인속공원, 룡라품되어관, 문수물놀이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면서 우수족수이란 말의 의미를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실감했다. 옳은 말이다. 고국에서 보고 느끼게 되는 모든것은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편리하고 문명한 생활이 차례차례 하시려는 김정원령도자의 구상과 결심, 지도가 얼마나 비상한가를 반증하고있다. 두서없이 말하건대 건설은 어느 나라에서 다 한다. 도로를 내고 거리를 형성하고 살림집을 짓는 나라라고 잘못될 표상을 가지고있었다. 이번에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겠는지는 은근히 걱정도 많이 하였다.

실지 와보니 생각했던것과는 달리 전혀 슬금이지 않은 나라, 따뜻하고 솔직한 사람들이라는것을 체감하였다.

우즈베끼스탄관광회사 사장 박루슬란

◇ 젊음에 넘치고 정열적인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일동지의 넋원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불철주야로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계시는 것을 TV와 신문들 통하여 잘 알고있다.

◇ 본께서는 모든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계신다.

◇ 령도도 크지 않은 조선이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당당히 맞서나갈수 있는것은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고있기때문이다.

◇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조선은 오늘도 세계지도에서 빛을 뿌리고있다.

◇ 로씨야내무성 내무군 아카데미아협주단 단장 워드르 엘리세예브(다음호에 계속)

경에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최근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그날 그이께서는 중앙양묘장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니 푸른 숲 설레일 조국의 매일을 보는것만 같다고 그리고 기뻐하시던 장군님의 영상이 안겨온다고 하시면서 장군님은 조국산천을 자신의 살점처럼 아끼고 사랑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이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정을 담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조용히 외우기도 하고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두근 두근 조국과 인민들이 그리워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불러보신 장군님이시었다.

조국의 산들을 보시면서는 우리가 조국의 산천을 훌륭히 꾸려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하시었고 울망참망한 폐기물들을 보시면서는 도지정리의 용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께서는 노래 《내 조국 한없이 좋아라》를 사랑한다고 하시며 그 노래가사 《푸른 하늘엔 해빛넘치고 기쁨진 이 땅엔 사랑넘치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것은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내 조국이 인민의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라는것을 형성적으로 표현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의 푸른 하늘과 기쁨들이 이 땅을 끝까지 지키고 락원으로 가꾸어갈것이라고 하시었다.

한평생 조국산천을 인민의 락원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헌신한 길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에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이 땅에 푸른 숲 우거질 매일의 휘황한 설계를 펼쳐주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언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안으시고 실천에 구현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주의는 김정일애국주의라고 하시면서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허주는 참다운 애국주의라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이 깃든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몸소 나무모를 손에 쥐시고 양묘장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를 수렴하, 원림화하도록 할데 대해 다 시금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리경철

민족의 리상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조국, 사랑하는 조국인민들에게 드리는 해외동포들의 고국찬가이기도 하다.

생산이나 건설뿐아니라 과학기술, 교육, 보건, 체육을 비롯한 이여의 모든 분야에 서 비약적인 상승과 장성에 대해 조국동포들은 다계단으로 변이 나고있다고 한다.

령도자의 인덕정치와 사회주의체도의 인민적시책하에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날과 날이 다르게 현실화되는 조국의 실상에서 인간리상향의 실체를 본다.

김 율리사

《마식령의 메아리》

—재우즈베끼스탄동포의 창작후기중에서—

앞당기는 조국의 현실에서 감동이 커 우리는 조국에 체류하는동안 무용 《마식령의 메아리》를 형성하여 제29차 4월의 봄 천선에술축전무대에 올렸었다. 시간이 긴박하고 기량도 미흡한 우리가 축전을 앞두고 이미 준비한 종목 대신 새 작품을 형성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했다. 어불성설이긴 하나 낮과 밤이 따로없이 부단히 춤가락을 익히며 연습을 거듭해 끝내 공연무대에 올릴수 있게 된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조국인민들의 《마식령수도》 창조열이 그대로 잘 어울렸기때문이다. 아니라고 부연하게 된다. 우리에게 모자라는 시간과 어쩔수 기량의 공백을 메꾸어준것이 《마식령수도》를 창조한 조국인민들의

숙련이었다고 단언하지 않을수 없다. 나는 축전에서 안삼삼상급점을 수상했다. 남이리나 가수도 조국인민들이 애창하는 노래 《바다 만풍가》를 재치있게 불러 사람들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고 축전수상자가 됐다.

우리가 형성한 《마식령의 메아리》 춤가락은 김정원령도자의 령도밑에 하나 낮과 밤이 따로없이 부단히 춤가락을 익히며 연습을 거듭해 끝내 공연무대에 올릴수 있게 된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조국인민들의 《마식령수도》 창조열이 그대로 잘 어울렸기때문이다. 아니라고 부연하게 된다. 우리에게 모자라는 시간과 어쩔수 기량의 공백을 메꾸어준것이 《마식령수도》를 창조한 조국인민들의

김금순

민족의 리상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조국, 사랑하는 조국인민들에게 드리는 해외동포들의 고국찬가이기도 하다.

생산이나 건설뿐아니라 과학기술, 교육, 보건, 체육을 비롯한 이여의 모든 분야에 서 비약적인 상승과 장성에 대해 조국동포들은 다계단으로 변이 나고있다고 한다.

령도자의 인덕정치와 사회주의체도의 인민적시책하에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날과 날이 다르게 현실화되는 조국의 실상에서 인간리상향의 실체를 본다.

김 율리사

《마식령의 메아리》

—재우즈베끼스탄동포의 창작후기중에서—

앞당기는 조국의 현실에서 감동이 커 우리는 조국에 체류하는동안 무용 《마식령의 메아리》를 형성하여 제29차 4월의 봄 천선에술축전무대에 올렸었다. 시간이 긴박하고 기량도 미흡한 우리가 축전을 앞두고 이미 준비한 종목 대신 새 작품을 형성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했다. 어불성설이긴 하나 낮과 밤이 따로없이 부단히 춤가락을 익히며 연습을 거듭해 끝내 공연무대에 올릴수 있게 된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조국인민들의 《마식령수도》 창조열이 그대로 잘 어울렸기때문이다. 아니라고 부연하게 된다. 우리에게 모자라는 시간과 어쩔수 기량의 공백을 메꾸어준것이 《마식령수도》를 창조한 조국인민들의

김금순

민족의 리상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조국, 사랑하는 조국인민들에게 드리는 해외동포들의 고국찬가이기도 하다.

생산이나 건설뿐아니라 과학기술, 교육, 보건, 체육을 비롯한 이여의 모든 분야에 서 비약적인 상승과 장성에 대해 조국동포들은 다계단으로 변이 나고있다고 한다.

령도자의 인덕정치와 사회주의체도의 인민적시책하에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날과 날이 다르게 현실화되는 조국의 실상에서 인간리상향의 실체를 본다.

김 율리사

《마식령의 메아리》

—재우즈베끼스탄동포의 창작후기중에서—

앞당기는 조국의 현실에서 감동이 커 우리는 조국에 체류하는동안 무용 《마식령의 메아리》를 형성하여 제29차 4월의 봄 천선에술축전무대에 올렸었다. 시간이 긴박하고 기량도 미흡한 우리가 축전을 앞두고 이미 준비한 종목 대신 새 작품을 형성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했다. 어불성설이긴 하나 낮과 밤이 따로없이 부단히 춤가락을 익히며 연습을 거듭해 끝내 공연무대에 올릴수 있게 된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조국인민들의 《마식령수도》 창조열이 그대로 잘 어울렸기때문이다. 아니라고 부연하게 된다. 우리에게 모자라는 시간과 어쩔수 기량의 공백을 메꾸어준것이 《마식령수도》를 창조한 조국인민들의

김금순

민족의 리상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조국, 사랑하는 조국인민들에게 드리는 해외동포들의 고국찬가이기도 하다.

생산이나 건설뿐아니라 과학기술, 교육, 보건, 체육을 비롯한 이여의 모든 분야에 서 비약적인 상승과 장성에 대해 조국동포들은 다계단으로 변이 나고있다고 한다.

령도자의 인덕정치와 사회주의체도의 인민적시책하에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날과 날이 다르게 현실화되는 조국의 실상에서 인간리상향의 실체를 본다.

김 율리사

《마식령의 메아리》

—재우즈베끼스탄동포의 창작후기중에서—

앞당기는 조국의 현실에서 감동이 커 우리는 조국에 체류하는동안 무용 《마식령의 메아리》를 형성하여 제29차 4월의 봄 천선에술축전무대에 올렸었다. 시간이 긴박하고 기량도 미흡한 우리가 축전을 앞두고 이미 준비한 종목 대신 새 작품을 형성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했다. 어불성설이긴 하나 낮과 밤이 따로없이 부단히 춤가락을 익히며 연습을 거듭해 끝내 공연무대에 올릴수 있게 된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조국인민들의 《마식령수도》 창조열이 그대로 잘 어울렸기때문이다. 아니라고 부연하게 된다. 우리에게 모자라는 시간과 어쩔수 기량의 공백을 메꾸어준것이 《마식령수도》를 창조한 조국인민들의

김금순

민족의 리상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조국, 사랑하는 조국인민들에게 드리는 해외동포들의 고국찬가이기도 하다.

생산이나 건설뿐아니라 과학기술, 교육, 보건, 체육을 비롯한 이여의 모든 분야에 서 비약적인 상승과 장성에 대해 조국동포들은 다계단으로 변이 나고있다고 한다.

령도자의 인덕정치와 사회주의체도의 인민적시책하에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날과 날이 다르게 현실화되는 조국의 실상에서 인간리상향의 실체를 본다.

김 율리사

《마식령의 메아리》

—재우즈베끼스탄동포의 창작후기중에서—

앞당기는 조국의 현실에서 감동이 커 우리는 조국에 체류하는동안 무용 《마식령의 메아리》를 형성하여 제29차 4월의 봄 천선에술축전무대에 올렸었다. 시간이 긴박하고 기량도 미흡한 우리가 축전을 앞두고 이미 준비한 종목 대신 새 작품을 형성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했다. 어불성설이긴 하나 낮과 밤이 따로없이 부단히 춤가락을 익히며 연습을 거듭해 끝내 공연무대에 올릴수 있게 된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조국인민들의 《마식령수도》 창조열이 그대로 잘 어울렸기때문이다. 아니라고 부연하게 된다. 우리에게 모자라는 시간과 어쩔수 기량의 공백을 메꾸어준것이 《마식령수도》를 창조한 조국인민들의

김금순

민족의 리상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조국, 사랑하는 조국인민들에게 드리는 해외동포들의 고국찬가이기도 하다.

생산이나 건설뿐아니라 과학기술, 교육, 보건, 체육을 비롯한 이여의 모든 분야에 서 비약적인 상승과 장성에 대해 조국동포들은 다계단으로 변이 나고있다고 한다.

령도자의 인덕정치와 사회주의체도의 인민적시책하에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날과 날이 다르게 현실화되는 조국의 실상에서 인간리상향의 실체를 본다.

김 율리사

《마식령의 메아리》

—재우즈베끼스탄동포의 창작후기중에서—

앞당기는 조국의 현실에서 감동이 커 우리는 조국에 체류하는동안 무용 《마식령의 메아리》를 형성하여 제29차 4월의 봄 천선에술축전무대에 올렸었다. 시간이 긴박하고 기량도 미흡한 우리가 축전을 앞두고 이미 준비한 종목 대신 새 작품을 형성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했다. 어불성설이긴 하나 낮과 밤이 따로없이 부단히 춤가락을 익히며 연습을 거듭해 끝내 공연무대에 올릴수 있게 된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조국인민들의 《마식령수도》 창조열이 그대로 잘 어울렸기때문이다. 아니라고 부연하게 된다. 우리에게 모자라는 시간과 어쩔수 기량의 공백을 메꾸어준것이 《마식령수도》를 창조한 조국인민들의

김금순

민족의 리상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조국, 사랑하는 조국인민들에게 드리는 해외동포들의 고국찬가이기도 하다.

생산이나 건설뿐아니라 과학기술, 교육, 보건, 체육을 비롯한 이여의 모든 분야에 서 비약적인 상승과 장성에 대해 조국동포들은 다계단으로 변이 나고있다고 한다.

령도자의 인덕정치와 사회주의체도의 인민적시책하에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날과 날이 다르게 현실화되는 조국의 실상에서 인간리상향의 실체를 본다.

김 율리사

《마식령의 메아리》

—재우즈베끼스탄동포의 창작후기중에서—

앞당기는 조국의 현실에서 감동이 커 우리는 조국에 체류하는동안 무용 《마식령의 메아리》를 형성하여 제29차 4월의 봄 천선에술축전무대에 올렸었다. 시간이 긴박하고 기량도 미흡한 우리가 축전을 앞두고 이미 준비한 종목 대신 새 작품을 형성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했다. 어불성설이긴 하나 낮과 밤이 따로없이 부단히 춤가락을 익히며 연습을 거듭해 끝내 공연무대에 올릴수 있게 된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조국인민들의 《마식령수도》 창조열이 그대로 잘 어울렸기때문이다. 아니라고 부연하게 된다. 우리에게 모자라는 시간과 어쩔수 기량의 공백을 메꾸어준것이 《마식령수도》를 창조한 조국인민들의

김금순

민족의 리상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조국, 사랑하는 조국인민들에게 드리는 해외동포들의 고국찬가이기도 하다.

생산이나 건설뿐아니라 과학기술, 교육, 보건, 체육을 비롯한 이여의 모든 분야에 서 비약적인 상승과 장성에 대해 조국동포들은 다계단으로 변이 나고있다고 한다.

령도자의 인덕정치와 사회주의체도의 인민적시책하에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날과 날이 다르게 현실화되는 조국의 실상에서 인간리상향의 실체를 본다.

김 율리사

《마식령의 메아리》

—재우즈베끼스탄동포의 창작후기중에서—

앞당기는 조국의 현실에서 감동이 커 우리는 조국에 체류하는동안 무용 《마식령의 메아리》를 형성하여 제29차 4월의 봄 천선에술축전무대에 올렸었다. 시간이 긴박하고 기량도 미흡한 우리가 축전을 앞두고 이미 준비한 종목 대신 새 작품을 형성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했다. 어불성설이긴 하나 낮과 밤이 따로없이 부단히 춤가락을 익히며 연습을 거듭해 끝내 공연무대에 올릴수 있게 된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조국인민들의 《마식령수도》 창조열이 그대로 잘 어울렸기때문이다. 아니라고 부연하게 된다. 우리에게 모자라는 시간과 어쩔수 기량의 공백을 메꾸어준것이 《마식령수도》를 창조한 조국인민들의

김금순

민족의 리상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조국, 사랑하는 조국인민들에게 드리는 해외동포들의 고국찬가이기도 하다.

생산이나 건설뿐아니라 과학기술, 교육, 보건, 체육을 비롯한 이여의 모든 분야에 서 비약적인 상승과 장성에 대해 조국동포들은 다계단으로 변이 나고있다고 한다.

령도자의 인덕정치와 사회주의체도의 인민적시책하에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날과 날이 다르게 현실화되는 조국의 실상에서 인간리상향의 실체를 본다.

김 율리사

《마식령의 메아리》

—재우즈베끼스탄동포의 창작후기중에서—

앞당기는 조국의 현실에서 감동이 커 우리는 조국에 체류하는동안 무용 《마식령의 메아리》를 형성하여 제29차 4월의 봄 천선에술축전무대에 올렸었다. 시간이 긴박하고 기량도 미흡한 우리가 축전을 앞두고 이미 준비한 종목 대신 새 작품을 형성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했다. 어불성설이긴 하나 낮과 밤이 따로없이 부단히 춤가락을 익히며 연습을 거듭해 끝내 공연무대에 올릴수 있게 된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조국인민들의 《마식령수도》 창조열이 그대로 잘 어울렸기때문이다. 아니라고 부연하게 된다. 우리에게 모자라는 시간과 어쩔수 기량의 공백을 메꾸어준것이 《마식령수도》를 창조한 조국인민들의

김금순

민족의 리상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조국, 사랑하는 조국인민들에게 드리는 해외동포들의 고국찬가이기도 하다.

생산이나 건설뿐아니라 과학기술, 교육, 보건, 체육을 비롯한 이여의 모든 분야에 서 비약적인 상승과 장성에 대해 조국동포들은 다계단으로 변이 나고있다고 한다.

령도자의 인덕정치와 사회주의체도의 인민적시책하에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날과 날이 다르게 현실화되는 조국의 실상에서 인간리상향의 실체를 본다.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모락소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최근 유엔총회 제 69차회의 3위위원회 미국의 사측에 강권과 압력으로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통과시킨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미국이 주도한 《인권결의》는 조국을 배반한 인간스레기들의 《증언》이라는 허위날조자료를 모아놓은 이른바 조선인권상황관련 《조사위원회 보고서》라는 문서에 기초한 거짓과 모략, 악랄한 비방증상으로 일관되어 있다. 미국이 거수기를 쏘아 오아 《결의》 채택에 필요한 투표수를 가가스로 채웠지만 그중 적지 않은 나라들이 돈주머니를 흔들면서 경제원조를 자르겠다는 미국의 위협

# 미국의 《인권》모락소동, 리면에는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투표하지 않았던 안되었다는 사실은 이번 《결의》 채택을 음이 비렬한 모략과 돈으로 날조한 정치협착행위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대조선 《인권결의》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공화국주민 누구 하나도 만나지 않고 최최고 달이나 돈을 받고 허위증언을 일삼는 몇몇 쓰레기들의 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인권결의》라는 것이 허위와 모략으로 이루어졌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런 모략문서를 만들어낸 것은 유엔의 력사에 수치를 새긴것으로서 지난 시기

렬강들이 약소국들의 의사와 이익은 안중에 없이 제마음대로 이 나라들의 운명을 마구 통략하던 그때를 방불케 한다. 19세기말이나 20세기초도 아닌 21세기에 국제무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수치스러운것이 아닐수 없다. 유엔무대에서 공화국을 목표로 하여 갖은 허위와 모략으로 일관된 《인권결의》가 날조된것은 미국의 시종일관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고 그 최고표현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최종목표는 《붕괴》와 《압살》이다. 미국은 이

범죄적목적달성을 위해 정치적압력과 경제제재와 봉쇄, 핵을 동반한 군사적 위협 등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있다. 그러나 그 모든것이 통하지 않게 되고 공화국의 위력이 날로 강화되는 데 질겁하여 이제는 반공화국 《인권》모락소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데 달라붙게 된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인권》모락소세를 통해 공화국의 국제적영상을 호기게 하고 경제제재와 봉쇄를 더욱 강화하며 나아가서 《인권》을 교에 걸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 하고있다.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 그들은 《인권문제》를 요란스레 떠들어대며 국제적영문을 환기시킨 다음 침략무력을 내몰아 다른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짓밟아온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고 판례이다. 지금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대규모합동 군사연습을 펼칠나래 밀리면서 이 지역에 미군부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범죄적인 《인권》소동이든, 침략전쟁소동이든 공화국을 조공에 갇수 없으며 저들이 얻을것이란 수치와 비참한 패배뿐이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한다. 류현철

# 추악한 학살의 악마가 귀면

한편 말을 내뱉기 전에 입안에서 열번 굴리라는 격언이 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후과를 미치겠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이 초보적인 격언조차 모르고 분수없이 입부리를 놀려대는 사람은 만사사람의 조소와 비난을 받기마련이다. 현 남조선집권자가 신통히 그러하다. 그는 얼마전 한 외국총리와의 회담에서 《북의 핵 및 란도미싸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니 뭐니 하며 걸고든데 이어 《통일준비위원회》 3차회의에서는 《〈북인권〉이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북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있다.》느니 뭐니 하는 꾀변을 늘어놓았다. 입에서 뱀이 나가는지 구렁이가 나가는지도 모르는 분수없는자의 추태라 하겠다. 남조선집권자가 그대 그 누구를 걸고 《핵 및 란도미싸이에 대한 우려》니, 《인권개선》이니 할 한조박의 체면이나 일단 말기다.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북침을 위한 미국의 전조기지로 전락시키고 미국의 침략탄력수단들을 끌어들이며 일 매 시각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남조선보수패당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고있는 사실이다. 《세월》호참사 하나만 놓고보더라도 남조선이야말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적약자들의 초보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의 불모지, 인간생지옥이라하는것이 더욱 만천하에 드러났다. 저들의 이러한 부끄러

운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아닌보살하면서 그 누구의 있지도 없는 《인권》문제에 대해 입만 벌리면 목이 터지게 아내는 남조선집권자의 추태는 동족대결에 황장한자의 병적인 행위라 해야 할것이다. 그가 《대화》를 운운하면서 책임을 북에 돌리는것도 어불성설이다. 어렵게 마련된 대화분위기를 깨뜨린 것이 과연 누구인가.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전쟁소동에 매달리다 못해 인간스레기들을 내몰아 공화국의 최고준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베라살포망등을 련이 감행한 남조선보수패당이다. 지금 세계의 량심있는 인사들은 물론 남조선의 대다수 사람들도 북남사이에 마련된 대화분위기가 개선것이 바로 베라살포와 같은 남조선보수당국의 무분별한 대결책때문이라는데 대해 인정하고있다. 미국의 하수인이 되어 범죄적인 북침전쟁책동과 대결소동으로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몰아넣고 대화를 파탄시킨 주범이 상대방을 걸고드는 후안무치한 꾀변만 늘어놓고있으니 실로 가스로운 일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집권자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시도 때도 없이 동족을 모해하고 혈투는 험담만 계속 늘어놓는다면 대결에 광분하다가 제명을 살지 못한 《유신》독재자의 비참한 말로가 재현될수 있다는것을. 이것이 온 겨레가 그에게 보내는 준엄한 경고이다. 김진혁

이 해가 저물어가고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공화국을 반대하여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이, 로골적으로 벌린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이 더욱더 짙게 드리운 해였다. 알려진것처럼 년초부터 미국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을 눈여겨 보지 않거림 여기며 이를 꾀방하기 위한 로골적인 군사적위협공모에 매달려왔다. 미국은 남조선군부호전정파들과 함께 온 한해 《키 리틀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 《호국》훈련 등 북침전쟁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수습적인 침략무력과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전쟁장비들을 총동원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로골적인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였다. 미친듯이 벌어진 북침전쟁연습소동에는 레닌이 없는 대규모의 침략무력이 투입되고 첨단전쟁장비들이 동원되었다. 또한 상륙훈련과 공화국의 심장부에 대한 기습타격훈련, 기동훈련과 같은 공격적인 훈련들로 일관되었는 가 하면 사상처음으로 핵선제타격훈련인 《맞춤형억제전략》이 적용되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고도미사일발사체계를 《THAAD》를 남조선에 배치하기 위한 용계를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날강도적인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화약바가 거서칠 날이 없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한편으로는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전쟁준비완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인권》이니 뭐

미국은 가장 기만적이며 파렴치한 정치사기국으로서 공화국을 붕괴시키려는 미국 야마가 거서칠 날이 없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한편으로는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전쟁준비완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인권》이니 뭐

자 악에 받친 미국은 어떻게 저들의 전조선지배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지난 시기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인권문제》를 무력간섭의 명분으로 내세워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거어어 불을 지르려 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날로 더욱 강화되는 북침전쟁소동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 허위와 모략으로 강행되는 반공화국 《인권》모락소동은 고도로 치밀화된 흉악한 음모속에 뒤엉켜있다. 하지만 존엄높고 강위력한 공화국을 힘으로도 어쩔수 없고 《인권》공세로도 추호도 흔들수 없다. 그것은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는 격이다. 《인권》모락의 능수, 전쟁광신자들에게 차레질것은 수치와 비참한 패배밖에 없다. 본사기자 서희

# 《인권》간판뒤에는 전쟁의 총구가 있다

이 해가 저물어가고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공화국을 반대하여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이, 로골적으로 벌린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이 더욱더 짙게 드리운 해였다. 알려진것처럼 년초부터 미국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을 눈여겨 보지 않거림 여기며 이를 꾀방하기 위한 로골적인 군사적위협공모에 매달려왔다. 미국은 남조선군부호전정파들과 함께 온 한해 《키 리틀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 《호국》훈련 등 북침전쟁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수습적인 침략무력과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전쟁장비들을 총동원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로골적인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였다. 미친듯이 벌어진 북침전쟁연습소동에는 레닌이 없는 대규모의 침략무력이 투입되고 첨단전쟁장비들이 동원되었다. 또한 상륙훈련과 공화국의 심장부에 대한 기습타격훈련, 기동훈련과 같은 공격적인 훈련들로 일관되었는 가 하면 사상처음으로 핵선제타격훈련인 《맞춤형억제전략》이 적용되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고도미사일발사체계를 《THAAD》를 남조선에 배치하기 위한 용계를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날강도적인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화약바가 거서칠 날이 없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한편으로는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전쟁준비완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인권》이니 뭐

미국은 가장 기만적이며 파렴치한 정치사기국으로서 공화국을 붕괴시키려는 미국 야마가 거서칠 날이 없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한편으로는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전쟁준비완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인권》이니 뭐

자 악에 받친 미국은 어떻게 저들의 전조선지배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지난 시기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인권문제》를 무력간섭의 명분으로 내세워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거어어 불을 지르려 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날로 더욱 강화되는 북침전쟁소동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 허위와 모략으로 강행되는 반공화국 《인권》모락소동은 고도로 치밀화된 흉악한 음모속에 뒤엉켜있다. 하지만 존엄높고 강위력한 공화국을 힘으로도 어쩔수 없고 《인권》공세로도 추호도 흔들수 없다. 그것은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는 격이다. 《인권》모락의 능수, 전쟁광신자들에게 차레질것은 수치와 비참한 패배밖에 없다. 본사기자 서희

# 집권세력의 권력부정사건 폭로

남조선 《KBS》, 《MBC》, 《CBS》 방송들에 의하면 최근 집권세력의 측근이 《국정》운영에 개입한 권력부정사건이 폭로되어 정계를 뒤흔들고있다. 장본인은 오래전부터 현 집권세력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그와 인연을 맺어오다가 《한국미래연합》이 나온 이후 총재미시실장까지 맡았던 정운희이다. 그는 2004년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로 공식 취임한 이후 정계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집권세력의 보좌관 출신들속에서 《실정》으로 불리며 후속속의 인물로 존재하여 인사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배후에 정운희가 있다는 주장들이 터져나오곤 하였다. 그러던것이 얼마전 한 언론을 통해 청와대의 공직자 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운희의 동향문건이 공개되며 그 정체가 드러났다.

그에 의하면 정운희를 비롯한 집권세력의 측근들과 청와대 관료들이 청와대비서실장의 퇴진을 거론하였는가 하면 내부권력다툼까지 일삼아왔다. 이것이 리명박통치시기 집권세력과 동향관계에 있는자들이 청와대, 행정부 등의 요직을 차지하고 저들끼리 인사문제를 좌우하며 권력을 행사하다가 등장한 영포화사건을 방백해 하는것으로 하여 또다시 남조선 각계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바빠나 청와대측은 관련내용을 보도한 언론인들을 고소하며 야단치고 《새누리당》 패거리 역시 검찰에 진실명명을 맡기자고 떠들고있다. 집권세력은 이 사건에 대해 《국기문란행위》니 뭐니 하며 문건내용이 아니라 문건루출정위를 밝히는데로 수사선을 돌리려 하고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청와대를 비호할수록 의문이 더욱 커져 최대의 위기를 몰아넣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검찰수사로는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하면서 《새누리당》이 직접 진상을 밝히는데 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언론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의 초점은 무엇보다 문건내용의 진실여부를 밝히는것이라고 하면서 《청와대나 여권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권력을 개인일락추주의 필수적수단으로 여기고있는 퇴직집권세력의 통치하에서 부정부패사건은 이미 예고된 것이며 그것이 통치체들에 그 파멸을 재촉하는것은 필연이다. 본사기자



미국에서 반인종주의 행위의 시위 진행

벼룩이도 낮찍이 있다고 했다. 제 처지도 모르고 너무나도 파렴치하고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일본은 벼룩이보다 못한 나라이다. 최근 일본은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적극 편승하여 유엔무대에서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강압통과시켜서 앞장서 날뛰었다. 유럽동맹의 일부 적대세력들과 공모하여 나라와 민족, 지어는 제 부모조차까지 배반한 《탈북자》와 같은 인간스레기들이 지어낸 허황하기 지 않는 날조자료를 기초한 《결의안》을 만들어 내들리고 유엔총회 제69차회의 3위위원회 표결시 돈주머니를 흔들며 범죄적인 대조선 《인권결의》를 통과시킨다라 일본은 적지 않은 땅을 들었다. 《공로》의 대가로 미국상전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알수 없지 만 세계는 일본의 역겨운 추태를 보면서 《역시 뻔뻔스러운 국가》, 《정치난쟁이, 주대없는 나라》라는 비난과 조소를 퍼붓고있다. 그렇지 않았는가. 남을 시비하기 전에 제 처지부터 돌아보아야 한다고 일본의 얼굴에는 우리 민족

과 아시아인민들의 피로 얼룩져있다. 일본은 과거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성근히 반성하기를커녕 그를 미화분식하는 등 반인륜범죄를 계속 감행하고있다. 최근에 와서 일본은 우리 민족과 아시아인민들에게 불충분하게나마 사죄한 《고노담화》를 예써 부정하면서 전대미문의 성노예범죄를 인정조차 하지 않기로 하고있다. 《고노담화》이후 500여건의 일본군성노예범죄자료들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지어 일본은 다른 나라의 역사교과서들에 수록된 일본군성노예강제행차 자료를 《명백한 허위내용》이라고 하면서 실태조사를 한다느니, 시정할것을 요구한다느니 하는 추태도 서슴치 않고있다. 이렇게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일본밖에 없다. 투대협반인륜범죄를 청산하지 않았고는 유일한 나라로서 인권에 대해 논할 자격도 체면도 없는 일본이 있지 않겠는가 저우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국제무대를 소란스럽게 한것은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년년이 지속되는 일본의 이러한 지랄발은 그들이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총건이 지어 얼마나 날뛰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일본은 지난 세기 초엽부터 우리 민족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며 천추에 용서 못할 한을 남긴 백년속적이다. 현 시기에도 일본은 자국내에서 타민족에 대한 극심

한 배타주의로 새로운 인권범죄악을 쌓고있다. 일본이 공화국의 합법적인 해외교포단체인 총련을 말살하기 위해 분주함을 피우는것은 그 단적실례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반인권범죄는 세월이 흐른다고 하여 결코 지워지는것이 아니다. 일본이 저들이 저지른 죄악을 사죄하고 배상하기는커녕 상전의 사자우니에 불어 공화국의 참다운 인권을 시비하는것은 역겨움만 자아낸다. 다른 나라의 사회정치제도와 생활방식을 녹거리식당의 조미료처럼 때없이 국제무대탁우에 올려놓고 시비중상하는 그자세가 곧 엄중한 인권유린행위이다.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하수인이 되어 존엄없는 공화국의 위상에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 인민자체가 선택하고 빛내여가는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려고 물던 병술던병 가리지 않고 날뛰는 일본의 어리석은 망동은 지금 우리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증오를 활화산처럼 타고오르게 하고있다. 일본이 과거의 치렬리는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을 할 대신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추종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죄악만을 덧쌓는다면 그로부러 차레지는 후과는 매우 크다. 일본은 백년속적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감정이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를 똑바로 보고 무분별하게 날뛰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응철

남조선에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극한점으로 치달아오고있다. 얼마전에 있는 유엔총회 제69차회의 3위위원회에서 미국의 노복이 되어 공화국을 반대하는 《인권결의》 채택에 앞장서 날뛰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이것도 모자라 《국회》에서 《북인권법》 채택을 위해 기를 쓰고 날뛰고있다. 이를 위해 보수집권세력들은 《국회》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청취》라는 반공화국의 참다운 인권을 시비하는것을 역겨움만 자아낸다. 다른 나라의 사회정치제도와 생활방식을 녹거리식당의 조미료처럼 때없이 국제무대탁우에 올려놓고 시비중상하는 그자세가 곧 엄중한 인권유린행위이다.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하수인이 되어 존엄없는 공화국의 위상에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 인민자체가 선택하고 빛내여가는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려고 물던 병술던병 가리지 않고 날뛰는 일본의 어리석은 망동은 지금 우리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증오를 활화산처럼 타고오르게 하고있다. 일본이 과거의 치렬리는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을 할 대신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추종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죄악만을 덧쌓는다면 그로부러 차레지는 후과는 매우 크다. 일본은 백년속적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감정이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를 똑바로 보고 무분별하게 날뛰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응철

등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런 속에 보수집권세력들은 인간스레기들까지 내세워 공화국을 반대하는 심리모략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려는 흉악한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지난 11월 26일 남조선 《국회》에서 《북인권법》 채택을 위해 기를 쓰고 날뛰고있다. 이를 위해 보수집권세력들은 《국회》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청취》라는 반공화국의 참다운 인권을 시비하는것을 역겨움만 자아낸다. 다른 나라의 사회정치제도와 생활방식을 녹거리식당의 조미료처럼 때없이 국제무대탁우에 올려놓고 시비중상하는 그자세가 곧 엄중한 인권유린행위이다.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하수인이 되어 존엄없는 공화국의 위상에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 인민자체가 선택하고 빛내여가는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려고 물던 병술던병 가리지 않고 날뛰는 일본의 어리석은 망동은 지금 우리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증오를 활화산처럼 타고오르게 하고있다. 일본이 과거의 치렬리는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을 할 대신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추종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죄악만을 덧쌓는다면 그로부러 차레지는 후과는 매우 크다. 일본은 백년속적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감정이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를 똑바로 보고 무분별하게 날뛰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응철

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들은 지금까지 민족앞에 지은 대역죄도 모자라서인지 그 무수 《국민통일방송》 발기인대회관것을 열고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통일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것과 같은 광기를 부리었다.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들에 환장이 된 인간추물들은 그 무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정보전달》을 운운하며 현재 단과로 하고있는 반공화국방송송출을 때때로는 종파로 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OTV》와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북단체

# 과학자들을 위한 사랑의 금방석 - 연풍과학자휴양소



## 과학자들이 받는 최상의 대우

연풍과학자휴양소를 찾은 우리의 눈앞에 제일 먼저 안겨온것은 바다처럼 설레이는 연풍호와 호수가 주변에 펼쳐진 울울창창한 수림이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경치가 좋았다. 휴양소가 자리잡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명당자리가 있을상심치 않았다. 풍치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연풍호, 열두삼천리 별농민들의 물에 대한 세기적속망을 풀어주시러 온 갖 르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전설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연풍호에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회한한 과학자휴양소가 일떠선것이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세상 같으면 특권계층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들고있을 명당자리에 평범한 과학자들을

위한 휴양소가 자리잡았으니 생각할수록 감동이 컸다. 과학자휴양소구내에 들어선 우리는 한쪽의 그림과도 같은 회한한 전경에 입을 딱 벌렸다. 건축형식에서 주제성, 민중성, 독창성, 편리성이 철저히 구현되고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완벽하게 구현된 연풍과학자휴양소의 모습 이 불수록 경탄을 자아냈던 것이다. 휴양소중심에 위치한 종합 봉사소 하나만 놓고보더라도 외벽타일과 지붕색깔이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데다가 휴양생들을 위한 온갖 봉사 조건이 그뿐하게 갖추어져있었다. 2층으로 꾸러진 종합봉사소에는 연회장과 식사실, 목욕실, 실내물놀이장과 함께 리발실, 미용실, 치료실, 협

의실, 전자도서실, 사진현상실 등 휴양생들을 위한 문화후생조건들이 마련되어있었다. 더우기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종합봉사소건물을 중심으로 9개의 호동들로 뻗어나간 외랑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편안하게 다닐수 있게 한 외랑은 과학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의 손길을 엿볼수 있게 했다. 어디 그뿐인가. 특색있게 설치된 실내조명, 구색이 맞게 갖추어진 비품들, 문화후생조건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세면장과 목욕실, 지열에 의한 냉난방체계가 도입된 호실들은 웬만한 고급호텔도 왔다 울고 갈 정도로 황홀했다.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 연구사 한철훈

은 《지난 시기 학술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 발전되었다고 하는 나라에도 많이가보았지만 이렇듯 회한한 휴양소는 보지 못했다. 우리 과학자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에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라고 자기 심정을 토로하였다. 연풍과학자휴양소야말로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시대의 걸작이며 과학자들의 행복의 보금자리였다. 하기에 휴양소를 돌아보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금방석에 앉아 최상의 대우를 받으러 행복을 누리려는 이 나라의 과학자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나고. 본사기자 김철호

경치좋은 연풍호기슭에 일떠선 과학자휴양소에서 나라의 미래를 떠맡는 과학자들이 한생 잊지 못할 꿈같은 휴양의 나날을 보내고있다. 호수가의 풍치와 어울리게 멋진 건축미를 자랑하는 연풍과학자휴양소를 찾아 종합봉사소에 들어서니 방금 식사를 끝낸듯 휴양생들이 웃음꽃을 피우고있었다. 《오늘 점심식사는 어제와 또 다르구나.》 《아무렴, 우리를 위한 요리사들의 정성이 정말 대단해.》 《오후에는 무슨 경기를 할가?》 《어제 결판을 내지 못한 배구경기를 하세. 오전에 탁구경기에서 진 봉창도 할걸.》 누군가의 이 말에 휴양생 모두가 환성을 올렸다. 즐거움에 넘친 그들과 함께 우리는 다용도야외운동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쪽에서는

정구, 다른쪽에서는 바드민톤을 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야외운동장은 이미 휴양생들로 한뼉 뒤덮여있었다. 휴양생들로 제일 흥성이 높은 곳은 역시 대체육경기장을 하는 배구장이었다. 오후 경기는 어떻게 진행되는가고 묻는 우리의 말에 휴양생들의 생활반장으로 추천되었다는 미생물학연구소 배청수부소장은 평양에서 온 휴양생들의 모습도 불만 하였던 환성을 울리며 성수가 나서 응원하는 휴양생들로 배구장은 떠나갈듯 하였다. 휴양생활을 한지 며칠 안되지만 경기에 출전한 랑팀 휴양생들은 서로 마음을 합쳐가며 멋진 득점장면들을 펼쳐보였다. 휴양소에 올리는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는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일떠선 실내물

놀이장에서 울려나왔다. 《물놀이를 좋아하지 않는 휴양생은 한명도 없는것 같습니다.》 관리원은 실내물놀이장을 찾은것은 휴양생들의 어길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물놀이를 즐기는 휴양생들이 많아 손이 모자랄 때가 종종 있다고 말하였다. 물론도보장으로 물러가자리에 이르러까지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종되는 실내물놀이장에는 많은 휴양생들이 와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었다. 수조안에서 초음파안마를 받는 사람들, 덕수에 은물을

말긴 사람들, 물에 뛰어들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상쾌하게 해주었다. 석란과학분원의 한 연구사는 이렇듯 훌륭한 곳에서 휴양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전에는 연구사업을 하면서 휴양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일류급호텔 못지 않은 과학자휴양소에서 휴식을 하니 쌓였던 피로가 순간에 쏙 풀리고 한결 더 젊어지는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과학자들을 위해 이처럼 최상급의 휴양소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정치, 과학중시정치가 제일입니다.》 스펀없이 터치는 그 말에 우리의 가슴은 젖어들었다. 실내물놀이장의 맑은 물에 몸을 푹 잠그고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휴양생들의 웃음소리와 다용도야외운동장에 펼쳐진 체육경기들은 모두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다. 그러니 행복의 웃음꽃은 물에서도, 물밖에서도 피는 셈이었다. 본사기자 최대성

## 즐거움속에 피로도 가셔져

양생들과 함흥에서 온 휴양생들간의 결승경기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랑팀의 실력파 기세가 만만치 않다고 말하였다. 호각소리와 함께 열기를 띠고 진행되는 배구경기, 연구소의 명칭과 연구사업은 서로 달라도 마음과 마음을 합쳐가며 연속 강타를 안기는 동작은 전전체육선수들 못지 않았다. 《저걸 보십시오. 세번째 공은 무조건 강타입니다. 저게 바로 최첨단도 단숨에 점령할 우리 과학자들의 기상입니다.》

공을 재치있게 다루는 휴양생들에게 차려진 푸짐한 음식상이야말로 연풍 《신혼생활》을 하는 과학자부부 이 쉬는 날에도 과학탐구의 탐과 노력을 바쳐온 이들이 아닌가. 그러나 모든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이곳 휴양소에 서 즐거움과 랑만에 넘친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으니 《신혼생활》이든 이보다 더 좋은 《신혼생활》이 또 어디에 있으랴. 하기에 과학자부부들의 입에서는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가락이 때없이 울려나오곤 한다. ... 로동당의 은덕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나

본사기자

## 휴양생활의 이모저모

### 관한 걱정

무릇 사람들은 여행이나 휴양을 떠나기에 앞서 그 준비에 원심을 쓰곤 한다. 연풍과학자휴양소 첫기휴양을 떠나는 휴양생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그야말로 맨몸으로 와서 든 한푼 들이지 않고 마음껏 휴식할수 있는 행복의 금방석이었다. 하기에 휴양생들은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관한 걱정을 했군.》

휴양생들에게 차려진 푸짐한 음식상이야말로 연풍 《신혼생활》을 하는 과학자부부 이 쉬는 날에도 과학탐구의 탐과 노력을 바쳐온 이들이 아닌가. 그러나 모든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이곳 휴양소에 서 즐거움과 랑만에 넘친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으니 《신혼생활》이든 이보다 더 좋은 《신혼생활》이 또 어디에 있으랴. 하기에 과학자부부들의 입에서는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가락이 때없이 울려나오곤 한다. ... 로동당의 은덕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나

본사기자

본사기자

### 푸짐한 음식상

하지만 휴양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고급호텔 못지 않은 침실은 물론 맛있는 당과류와 음료들, 세면도구와 여성들을 위한 고급화장품 등 생활과 휴식에 필요한 모든것들이 그뿐하게 갖추어져있었던 것이다.

휴양생활에서 휴식과 운동도 좋지만 영양보장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고급강산수경도 시후경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곳 휴양소의 봉사자들은 과학자, 연구사들을 위한 피로회복과 영양공급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있다. 입소한 첫날에는 축하연회가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각종 고급음식들이 올라 마차 국가연회석상을 방불케 한다. 또한 매끼마다 쟁고기완

자, 남새고기소점, 소고기볶음, 버섯볶음, 가재미양념구이, 연어랑, 돼지발쭈점, 연반, 김치 등을 비롯한 맛 좋고 영양가높은 음식들을 식탁우에 놓아주고있다. 한번 올랐던 음식은 반복이 없도록 식사차림표를 짜놓아 휴양생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고급음식들을 여기서 다 맛보고있다. 거기에다 연풍호에서 금방 건져낸 펄펄 뛰는 붕어와 메기를 가지고 구수한 어죽도 해주어 휴양생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 사랑에는 보답이 따르기 마련

나는 이번 제1기 휴양생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과학자이다. 아직 한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29살의 젊은 과학자인 내가 나이많은 과학자들과 함께 사랑의 금방석우에 나란히 앉았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 말로만 들어오고 TV로만 보이는 연풍과학자휴양소에 직접 와보니 그야말로 궁전이나 호텔보다 더 훌륭한 휴양소라는것을 제 눈으로 똑

똑히 보고 느낄수 있었다. 매끼마다 달라지는 식사차림표, 매일같이 놓여지는 과일과 당과류, 잊지 못할 휴양의 나날을 사진에 남기라고 사진현상실로 바뀐 기념품매대를 비롯하여 휴양소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다심하신 사랑이 깃들지 않은것이란 하나도 없다. 정녕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목이 매인다. 이것은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사는 우리 과학자들만이 누릴수 있는 만복이라고 생각한다. 사랑과 믿음에는 보답이 따르기 마련이다. 나는 우리 청년과학자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믿음에 최첨단 연구성파로 기여이 보답하겠다.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 리경철



###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미술가들

# 사실주의 유화 발전에 기여한 화가

참된 삶의 보람과 창작적 열정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설사 미술에 대한 천부적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빛을 내고 역사에 남는 명작을 창작하는가 하는것은 화가 자신의 생활과 창작조건을 결정하는 사회제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해방전 우리 나라 화가들은 거의 다 미술에 뜻을 두고 동부서주하면서 붓을 하고 회화관찰에서 붓을 들고 수십년 세월을 보냈으나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말하려는가하는 견지에서 보면 그 어느 화가도 똑똑한 주제적성격의 작품을 내놓지 못하였다.

일제통치의 가혹한 현실을 체휼하면서 선진적인 작가들과 같은 비판적사실주의 작품을 그려내지 못한 이유는 화가들의 세계관적압력과 시대적제한성에 그 원인이 있다.

화가 김진섭은 1907년 2월 평양 상수구리(현재 평양시 중구역)의 애국적인 목사가정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3.1인민봉기 때 그의 아버지는 반일운동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였다.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에 다니던 그는 우리 나라에서 유화가 급속히 전파되어가는 데 현혹되어 서울에 가서 유

화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초기 유화인 《자화상》(1924), 《대동강이 바라보는 풍경》(1925)은 묘사가 매우 미숙하고 색채만 부리는 주관주의적경향이 농후하였다.

자신이 미술을 하는것을 그로록 반대하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일본도쿄미술학교 서양과에서 공부하면서 유화 《풍경》(1927), 《정물》, 《인물》(1927), 《백일화》(1930), 《산》(1932)을 창작하여 전람회에 출품하였다.

그는 1932년 일제의 어용미술전람회참가를 거부하고 김용준과 함께 《목일회》라는 미술전람회단체를 조직하였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었고 그 조직은 해산되고말았다.

김진섭은 일제통치의 학정 밑에서 민속유화의 후비들을 키워내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백만화》라는 조직을 맺고 미술신인들을 키우는 사업에 몰두하였으나 일제의 교활한 방해책동으로 중단되었다.

그가 1934년 제14회 사회

협회전람회에 출품한 유화 《얼굴》(1934)과 유화 《모자》는 색채치러가 대담하고 필치가 능숙한것으로 평가되었다.

1937년 여름에 그는 평양에서 첫 개인미술전을 가지고 유화 《인덕풍경》, 《성밖의 너인들》을 비롯한 40여점의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그는 서울에서 문예잡지 편집인과 하고 한성보육학교와 서울동구녀자상업학교에

서 교원을 하면서 주로 풍경화를 창작하였다.

1940년대초에 전라남도도의 산천을 그린 유화 《유달산》(1940)과 《해변가》(1941), 《한강》(1942)에서 그는 일제의 가혹한 억압과 락탈에 신음하는 조국인민들의 생활감정을 안고 회색조의 색채가 지배적인 화면을 그려내곤 하였다.

남조선에서 8.15를 맞이한 그는 나라의 미술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려는 열의를 안고 우익보수세력들에게 해주에서 진행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가하였다.

그는 이 대회에서 영광스럽게도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으로 선거되었다.

해방전 김진섭은 다른 유화미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서방유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기때문에 창작에서 인상주의적인 풍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1948년 8월 김진섭은 남조선의 애국적인 인사들과 함께 해주에서 진행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가하였다.

그는 이 대회에서 영광스럽게도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으로 선거되었다.

해방전 김진섭은 다른 유화미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서방유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기때문에 창작에서 인상주의적인 풍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서부터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의거하여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작품들을 창작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미술행정사업과 창작지도사업을 맡아하면서 전쟁승리를 위해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었다.

전후북구건설시기에 그는 유화 《또다시 조국전군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5)를 비롯하여 《종달새가 운다》(1957), 《심령목장에서》(1955)를 창작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 그의 창작생활에서는 큰 전환이 일어났다. 천리마시대를 대표하는 걸작들을 창작하는 데서 그는 지금까지 축적해온 기량을 남김없이 폭발시키었다.

유화 《전쟁이 끝난 강선평에서》(1961), 《청산리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1965), 《작전일 무를 주시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

(1968)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에서 력사적의의가 있는 내용들을 주제로 하여 창작한 시대의 걸작들이다.

특히 유화 《전쟁이 끝난 강선평에서》는 1960년대 우리 미술의 대표작으로서 인민을 믿고 그 힘에 의거하여 전후복구건설도, 사회주의 건설도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한없이 소박하고 겸허하신 품성을 사실주의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화면에는 미제의 야만적인 폭력으로 폐허가 된 공장구내의 황철나무아래에서 수수한 의자도 만류하시고 개어진 벽체에 앉으시여 강선로동계급에게 제강소(당시)를 빨리 복구하여 강철을 뽑을데 대하여 말씀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을 잘 형성하였다.

그는 이 시기 유화 《장진호반》(1959), 《신계사로 가는 길》(1962), 《이른봄》(1963), 《삼지연풍경》(1964) 등 수많은 풍경화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그는 국가의 높은 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10여년동안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직을 하였으며 중국과 이천썬원을 방문하여 우리 나라 미술을 대외에 널리 선전하는데 기여하였다.

최명수



김진섭의 작품 《심령목장에서》(1954), 《바다풍경》(1965)

## 민족의 우수성을 빛내이기 위해

### \*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 \*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 주제성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에 따라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일꾼들은 많은 유적, 유물들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마모, 소실되고있는데 맞게 그에 대한 보존과 복원을 착실히 해나가고있다.

민족유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산의 원모습과 가치에 대한 정확한 학술적고증과 견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보존 및 복원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하여 이곳 일꾼들은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사회과학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과의 긴밀한 관계밑에 유적, 유물들에 대한 정확한

학술적고증 및 보존, 복원방안작성을 다그치고있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는 우리 나라의 모든 민족유산들을 다시 재조사하고 정확한 자료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즉 전국의 민족유산들을 각이한 지표들로 분류하고 신속정확히 관리할수 있는 자료기지구축사업을 다그치고있다.

이와 함께 유적, 유물의 추정, 조사 및 보존사업에 여러 가지 환경보호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을 비롯한 여러 과학연구단위들과의 협력속에 유산보호에 필요한 여러가지 물질적수단들을 자체로 연구, 제작하기 위한 사업도 내밀고있다.

본사기자

조선민족유산보존사의 과학적 및 물질적토대를 강화하여 이 단위를 민족유산보호사업의 과학기술중심으로, 능력있는 자문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있다.

비물질유산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되고있다. 현재 우리 민족의 추석맞이풍습, 김치담그는 방법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이 계획, 진행되고있다.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유산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이들의 노력에 의하여 유우하고 찬란한 우리의 민족전통은 더욱 활짝 꽃피어가고있다.

본사기자

## 속 단 협력, 이웃

《개미 천마리면 망들도 굴린다.》 작은 힘이라도 여럿을 한데 합치면 큰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이르는 말.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어떤 일든지 혼자 하는것보다 서로 힘을 합쳐 하면 쉽다는 뜻으로 집체적힘을 동원하는것이 중요함을 비겨 이르는 말.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함께 하는 일이 잘되려면 두권이 다 적극 나서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팔백백으로 집을 사고 천금으로 이웃을 산다.》 사람에게 있어서 집도 중요하지만 집이나 재물보다도 이웃을 잘 사귀어 관계를 잘 가지는것이 더 중요함을 이르는 말.

우리 민족악기들은 음색이 우아하고 부드럽고 처량하며 그 종류가 다양하고 풍부하여 민족음악의 정서를 충분히 표현할수 있게 발전하였다.

악기수는 수백종에 달하며 한 악기인 경우에도 2~3가지, 많은것은 10여 가지에 달하고있다.

가야금, 공흥, 해금, 월금, 아쟁 등의 현악기들 그리고 장고, 북, 팽파리, 징, 바라, 운라, 방랑, 편종, 편경 등 타악기들이 있다.

우리의 민족악기는 세계적으로 오랜 발전력을 가지고있다.

옛 선조들은 원시시대에 벌써 속이 빈 나무통이나 대나무, 짐승의 뿔, 뼈, 소라껍

질, 풀잎 등으로 당시로서는 매우 발전된 악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고구려시기에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갖추어진 관현악과 고취악(관악의 일종)이 발전되어왔다.

오늘 공화국에서 지난 시기 민족악기들이 가지고있던 일련의 제한성들이 완전히 퇴치되었을뿐 아니라 많은 악기들이 새로 창안제작되었다.

개량된 민족악기들에서는 그 음역과 음량 면에서 확실히 대되고 맑고 부드러운서도 우아한 본래의 음색이 더욱 풍부해졌다.

또한 12반음계를 자유롭게 연주할수 있게 되고 그 표현적가능성도 훨씬 늘어났으며 형태도 더 좋고 편리하게 들어왔다.

결과 우리의 민족악기로서는 행정적은 물론 다양한 정서의 모든 음악작품들을 다 훌륭히 형성할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 독특한 우리 민족악기

우리 민족악기로는 독주, 중주, 합주, 관현악, 병창 등 여러가지 연주를 할수 있으며 독특한 소리와 섬세한 기교로 하여 풍부한 표현력을 가지고있다.

나라없던 그 세월 일제의 야만적인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발전의 길을 걸지 못하던 민족악기는 해방후 재생되어 급속히 발전하여왔다.

본건을 호소한 문화계몽적성격을 띠는 노래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때에는 이 노래들을 가리켜 창가라고 하였다.

계몽가요는 3.1인민봉기 일제의 야수적탄압으로 실배

## 남알을 가루내어 먹으면

남알을 가루내어 먹으면 밥을 지어 먹을 때보다 소화 가 훨씬 더 잘된다.

밥을 먹을 때에 사람들은 오래 씹어서 삼키는것이 아니라 몇번 씹지 않고 삼키는 것이 보통이다.

설사 밥을 아무리 오래 씹는다고 해도 농마에 소화액이 풀고루 섞이지 못한다.

강병이, 밀 등을 가루내

어 먹으면 오래 씹지 않아도 소화액이 풀고루 섞이어 소화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가루음식은 굳지 않으므로 위에도 부담도 적게 준다. 또한 가루는 낫새 등 다른 음식물들과 섞어서 먹을수 다양하고 분한있게 해먹을수 있으니 더욱 좋다.

본사기자

조선8승은 예로부터 전해오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조선8경 다음가는 8개의 절승이다.

경성의 온포, 황해남도의 몽금포, 한려수도의 부안도, 부산의 변산반도, 부여, 가야산의 해인사 계곡, 속리산, 한나산이 조선8승에 속한다.

본사기자

## 양호당집과 개성편수 (9)

### 글 정의선, 그림 김윤일

번씨는 손님들을 빨리 돌아가라 재촉하여 둘러보낸 후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다 둘러보내고는 대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근후 자기도 팔묵질을 예뻐히 집으로 왔다. 그런데 웬일인지 편수 죽집은 그날도 그 이튿날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

왕궁으로 돌아온 방원은 급히 의복을 갈아입고 편정으로 갔다. 임금에 불렀던것이다. 세자 방원이 임금에게 인사하고 앉으니 임금은 어디에 갔었는가고 물었다.

《저 민심을 좀 알아볼가 해서 잠깐 저자에 나왔었소이다.》

방원의 대답에 임금은 흥미가 없지 정색을 하며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매일 아침 풍뢰를 세자에게 전위하려고 하오.》

방원에 있어서 찬탄뜻밖의 말이다. 이 일이 이렇게 빨리 울췌은 몰랐다.

속으로는 탄세를 부르코싶었고 경중경중 편수죽집이란 방원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흘러나왔다.

《대왕전하, 전위란 무슨 말씀이오이까. 대왕전하께서 기체만강하시오니 보위를 지킴에 지장에 없으신데 어찌 전위하시겠다고 하시오이까.》

《아니요, 파인이 이미 결심한바이니 매일 아침 수창궁에서 등극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오. 왕관과 끈포는 곧 보내주겠소.》

이날 방원은 세번 사양한다 후 마지못해 하는듯 하면서 어지를 받겠노라고 했다.

방원은 무뎠 기뻐했다. 이날 밤 그는 한잠도 자지 못하고 몸을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이했다. 세자비 민씨도 같은 심정이였다.

이리하여 그 이튿날 방원은 서른세살에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조선봉건왕조의 3대왕 태종이다.

임금이 된 방원은 생각이 많았다.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자기가 달려온 행로가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사람도 많이 죽었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도 모질게

굴였음이 회억되었다.

방원은 이젠 자기가 어진 임금으로 생색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방원이가 내심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된것은 저자거리 편수죽집에서 알게 된 볼로도 권세로도 쓸수 없는 민심때문이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그들의 말은 고려 태조왕처럼 대법하고 아량이 있으며 인자해야 성스러운 임금이 될수 있다는 진리를 어설프게나마 알게 해주었 같다.

란일이 심하면 그만큼 반항이 커지기 마련이다. 한사람의 목을 베면 백사람, 천사람의 원한과 저주를 받게 되며 그들의 원수로 된다.

강권과 탄압만으로는 왕권을 공고히 할수 없다는것을 그는 회피하게나마 느꼈다.

방원은 민심을 낚기 위해 회유정책부터 써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등극한 새 임금의 부름을 받고 흥분한 대재학을 비롯한 한 중전세상들이 통상앞에 모이였다. 방원은 그들에게 엄숙히 선언하였다.

《파인의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은혜를 베풀지어다. 대사를 내려 옥에 갇혀있거나 류배당하고있는자들을 석방하며 포로있는 충신들에게 작호(관리들에게 주는 칭호)도 주며 관직과 품계도 올려주려고 한다.》

또한 이미 별세한 높은 벼슬아치들과 이룬한 학자들에게 관직도 추증(죽은 다음 벼슬을 올려주는것)하고 시호(죽은 다음 주는 칭호)도 제정하여줄것이다. 그러니

시호를 주자고 한다.》

이렇게 방원은 선정을 베풀것처럼 너스레를 퍼쳤다.

이리하여 정몽주는 방원에 의해 살해된지 9년만에 역적의 무명을 벗었을뿐 아니라 의외에도 조선봉건왕조의 최고관직인 령의정을 추증받았으며 문충공이란 시호를 받았다.

이렇게 《선의》를 보여준것은 방원이가 번씨편수죽집에서 받은 충격도 크게 작용했으리라.

방원이 민심을 낚기 위해 장례를 치르고 그의 유골을 정리할 때 그가 쓴 여러권의 저작들을 보고 아들들은 깜짝 놀랐다.

《그 저작들에서 고려말엽의 정치정세와 경제형편, 국방, 외교 등 당대의 형편을 사실 그대로 써놓았으며 특히 궁중비화나 권력쟁탈의 전말에 대하여 상세히 써놓았다.》

그 모든 글에서 역신들의 책동과 특히 리성제일파의 왕위찬탈행에 대하여 신랄히 규탄하였다.

이 글을 읽어본 아들 흥강은 이 글을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 문종이 멸살당하고 통지처참을 당할것이니 이 화근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모두 불태워버리었다.

그래서 아쉽게도 그의 저서가 빛을 보지 못하였다.

고려 충현민지 요은 정몽주, 목은 리색, 도은 리승인, 윤곡 원천석, 소암 길재 등 여러 인사들의 글은 지금까지 전해져서 그들의 품모를 잘 알수 있는데 유독 양호당의 저서만은 전해지지 않았으니 이것은 력사에 손실이 아닐수 없다.

양호당 우원보의 저서들과 함께 개성편수를 만든 번씨녀인의 이야기도 그 이상 전 해지는것이 없다.

양호당 우원보는 68세의 해에 사망하였다. 양호당의

이러한 애국문화운동을 반영하여 나온것이 《신소설》이라고 불리는 문학작품들과 계몽가요들이다. 신소설과 계몽가요들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과 근대적인 문명개화를 지향하는 애국문화

이러한 애국문화운동을 반영하여 나온것이 《신소설》이라고 불리는 문학작품들과 계몽가요들이다. 신소설과 계몽가요들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과 근대적인 문명개화를 지향하는 애국문화

이러한 애국문화운동을 반영하여 나온것이 《신소설》이라고 불리는 문학작품들과 계몽가요들이다. 신소설과 계몽가요들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과 근대적인 문명개화를 지향하는 애국문화

고려시기의 무관이었다던 김숙홍(?~1011년)장군의 가운은 김소를 뛰어넘어 고통을 견디어내는데 가풍으로 삼았다 고 하리만큼 어려웠다. 김숙홍은 유복자로 태어나 어머니 리씨의 손에서 자랐다.

아버지의 얼골조차 모르는 자식을 키우는 리씨의 고고이런 노력과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어머니 리씨는 남편의 유언을 지켜 어린 자식을 장수로 키우려라 다짐하고 애썼다.

동지살달 어느날 서당에서 돌아오던 숙홍이 영영 울면서 돌아 들어섰다. 알고보니 뱀전 추위에 못 견디어 울음보를 터친것이다.

리씨는 그자리에서 우는 아들을 이끌고 우물가에 내다세웠다. 어린 숙홍은 옷을 벗으라는 어머니의 엄한 말에 울음을 그쳤다.

어머니는 드레박으로 우물안에서 물을 퍼올렸다. 그때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된 숙홍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다시는 추워도 안 올것으니 내 옷을 벗기 싫어 하고 소리내어 울음을 터쳤다.

그때야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물기를 돌아가시면서 너를 훌륭히 키우려라 장수로 키우라고 유언하였다고 하면

서 요절한 추위에 새배자식 이라는게 울음보를 터치니 미루게 게신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어머니를 원망했겠는가고 하였다.

이 일이 일어난 후 리씨는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훈련도 시켰다. 겨울에는 흙옷을 입히고 먼 발로 다니게 하고 여름에는 겉옷에 다 번신을 신기는 등 심지어 아산에 가서 눈야미 밭등 밭동한 큰 두개미를 잡아 가지고 와서 아들에게 주면서 산채로 뜯어먹으라고 하여 아들을 놀래웠다.

리씨의 눈물겨운 지성으로 김숙홍은 과거의 무과에 장원급제하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큰 촉망받던 당시 국방상 주요한 요충지인 북쪽경쟁지대의 구주별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나날에도 그는 어머니 생일과 아버지제사날을 잊지 않고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를 찾아왔으나 어머니는 찾아온 아들을 반겨맞을 대신 나라의 번방국경을 비워놓고 온 아들을 엄하게 꾸짖곤 하였다고 한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속에 서 김숙홍은 외척권력자들과의 싸움에서 용맹을 떨쳐 나라와 인민의 사랑을 받는 애국명장으로 력사에 길이 남게 되었다.

본사기자